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문본 <詩經> 판본에 관한 고찰

- 明本 覆刻本 『詩傳大全』을 중심으로 -

A Study on Various Editions of Chinese Version <Shi Jing>

- Focusing on 『Shijundaquan』, the reverse engraved editions from Ming Books -

안 현 주(Hyeon-Ju Ahn)*

< 목 차 >

- | | |
|-----------------------|-----------------------|
| I. 緒論 | 2. 임진왜란 후의 책판목록의 <詩經> |
| II. <詩經>의 성립 및 전래 | IV. 한문본 <詩經>의 현존본 조사 |
| 1. <詩經>의 성립 | V. 계통별 분석 |
| 2. <詩經>의 전래 | 1. 명본 복각본 계통 『詩傳大全』 |
| III. 책판목록에 수록된 <詩經> | 2. 기타 계통 |
| 1. 임진왜란 전의 책판목록의 <詩經> | VI. 結 論 |

초 록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현존하는 한문본 <시경>의 판본의 조사를 통해, 판본 42종을 대상으로 형태적 특징에 따라 계통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조선에서는 명의 永樂板 『詩傳大全』을 底本으로 한 覆刻본과 활자본 및 활자본의 복각본이 전체의 69%를 차지해 가장 자주 刊印되었고 널리 유통되었다. 그 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명본 복각본은 14종이 있는데, 초기본부터 임진왜란 직후에 간행된 판본들은 영락판과 거의 동일한 형태적 특징을 보여 주는데 후대로 갈수록 복각이 거듭되면서 영락판의 형태와는 거리가 멀어진 판본도 생겨났다. <시경>은 시기별로는 18세기에 가장 빈번하게 간행되었고, 지역별로는 경기지역과 경상지역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는데 경기지역에서는 활자본이, 경상지역에서는 감영본이면서 명본 복각본이 주를 이루었다.

키워드: 시경, 조선시대, 명본 복각본, 영락판, 시전대전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survey publications of the chinese version of <Shi Jing> surviving to the present day and to analyze their characteristics systematically based on physical bibliographical assessment of its 42 versions. Important findings are following: During the Chosun Dynasty, the largest number (69%) of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Shi Jing> was from the Youngrak Version(Ming Books) of 『Shijundaquan』, of which reversely engraved editions, typologic editions, and the reversely engraved editions of the typologic editions were found. Among 42 versions, 14 reversely engraved editions are originated from the Youngrak Version. Those from earlier versions to the versions right after ImjinWar were similar to Youngrak Version i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later some editions were found to be far different from Youngrak Version by repeating the reverse engraving. As for the publication time of <Shi Jing>, most editions were printed in the 18th century. The publication region of <Shi Jing> was also examined, Gyeonggi and Gyeongsang regions are the most frequent printing places. Typologic editions were printed mainly at Gyeonggi region, and the reversely engraved editions from Ming Books were printed at Gyeongsang region as Gamyongbon (the books from Supervisory Office).

Keywords: Shi Jing, Chosun dynasty, reverse engraved editions of Ming Books, Shijundaquan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강사(treenbird@hanmail.net)

•논문접수: 2017년 2월 20일 •최초심사: 2017년 2월 28일 •게재확정: 2017년 3월 22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1), 267-289, 2017.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03.267]

I. 緒論

孔子(BC 551-BC 479)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유학이 성립되었고, 중국의 유학은 송나라 朱熹(1130-1200)에 의해 성리학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는 고려 말에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을 받아들였고 조선시대에는 통치이념으로서 성리학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졌다. 성리학의 經書는 정치, 학문, 관리등용의 중요한 도구가 되어 조선 지식인의 필수 서적이 되었다.

<詩經>은 유교의 경서인 <五經> 중의 하나이다. <오경>은 <사서>보다 먼저 경서로 성립되었으며, 漢나라의 오경박사제도는 우리나라 고구려와 백제의 유학과 제도에 영향을 끼쳤다. 공자는 “내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 온 이후에 음악이 바르게 되어 <시경>의 雅와 頌이 각각 제 자리를 얻게 되었다¹⁾.”라고 <시경>을 바로 잡고 정리하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시는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풍속의 성쇠를 살필 수 있게 하며,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하며, 윗사람의 잘못을 풍자할 수 있으며, 가까이는 부모를 섬기는 도리가 있고, 멀리는 임금의 섬기는 도리가 있으며²⁾...”라고 <시경>을 공부해야 하는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시경>은 유교의 중요한 경서이면서 사대부들의 문학을 위한 학습서이기도 했다.

그 동안 서지학계에서 <四書>의 판본에 관한 연구(송일기 2014; 안현주 2007; 옥영정 2005; 정왕근 2003; 우진웅 2006)는 계속 되어 왔으나 <오경>의 판본에 관한 연구는 <춘추>의 주해서 판본에 관한 연구(염종일 2005)만 있을 뿐 아직 체계적인 조사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시경>의 성립과 우리나라에 전래된 과정을 밝히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한문본³⁾ <시경>의 판본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간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판본조사는 국내외 대학도서관과 개인문고의 온라인목록과 실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明나라 成祖(永樂帝, 1360-1424)의 칙명으로 완성된 『五經大全』 중의 하나인 『詩傳大全』의 복각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시경>의 성립 및 전래

이 장에서는 <시경>의 성립과 <시경>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論語』 「子罕」, “子曰 吾自衛反魯 然後樂正 雅頌各得其所.”

2) 『論語』 「陽貨」,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3) 조선시대에 간행된 <시경>판본 전체를 한문본과 언해본으로 나누었다.

1. <시경>의 성립

<시경>은 중국의 가장 오래된 문학이자 유교의 경서 중 하나이다. 상고시대부터 춘추 중기까지 평민이나 사대부들이 지었거나 조정의 연회 또는 의식이나 제사에서 연주된 305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오랜 세월동안 지어진 시는 천자가 采詩官을 파견하여 민간의 시가를 채집하는 제도가 있어서⁴⁾ 모을 수 있었고(양계초 1995, 173), 현재 전하는 305편의 시는 공자가 교화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중복된 것을 정리하고 다듬은 것이라 한다. 3천여 수 가운데서 십분의 일을 추린 것이라는 말도 있다. 공자 이후에 편집과 해석은 유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漢나라 유학자들이 <시경>을 정리한 텍스트와 해석한 내용이 후대에 전하게 되었다(심경호 강태권 2006, 40).

<시경>은 평민들의 민요인 風과 지도층이나 사대부들이 지은 왕정의 흥망성쇠를 노래한 雅, 조정에서 제사 지낼 때 조상의 덕을 칭송하는 頌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은 15국의 國風으로, 아는 大雅와 小雅로, 송은 周頌, 魯頌, 商頌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경>이 지금과 같은 텍스트로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세월과 여러 학자들의 학문적 검토 과정이 있었다. 중국의 經書에는 예부터 今文과 古文의 구별이 있었는데, 금문으로 된 경서란 漢代에 통용되던 隸書로 씌어진 것들을 말하며 고문이란 秦나라 이전에 유행한 古文字로 씌어진 것을 말한다. 漢初에 <시경>을 전한 사람으로 申培公, 轅固生 및 韓嬰이 있었는데 이들의 詩說은 모두 금문이며, 이 시설을 ‘三家詩’라 부르게 되었다. 신배공은 魯나라 사람이어서 그의 詩說을 ‘魯詩’라 하고, 원고생은 齊나라 사람이어서 그의 시설을 ‘齊詩’라 하며, 한영은 燕나라 사람으로 그의 시설을 ‘韓詩’라 부른다. 韓詩는 삼가시 중에서 생명이 가장 길어 唐代까지 존재하였으며 지금도 外傳 10권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삼가시는 일찍이 失傳되어 宋代이후로는 고문인 毛詩만이 세상에서 통용되었다(김학주 2010, 37-39). 지금 우리가 보는 <시경>은 모시가 전해진 것이다.

<시경> 주석의 경우 鄭玄(127-200)의 箋注가 썩과 宋나라 시절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제나라와 위나라에서도 그 학풍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공영달은 말하고 있다(葛兆光 2013, 955). 즉 정현의 전주가 남방과 북방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이다. 당 태종은 집정초기인 貞觀 4(630)년에 <오경>의 異本들을 대조하여 正本을 만들도록 하였다. 3년 뒤 안사고에 의해 考定本이 완성되었고⁵⁾ 이후 태종은 孔穎達(574-648)을 책임자로 하여 표준주해서인 『五經正義』를 집필을 추진한다(이세동 2009, 17). 즉 漢代에 금문인 삼가시와 고문인 毛詩가 각기 관학과 민간학으로 서로 대립하다가 모시가 세력을 얻은 뒤 唐代 공영달이 『毛詩正義』

4) 班固 『漢書』 「藝文志」, “古有采詩之官 王者所以觀風俗 知得失 自考正也.”

5) 『舊唐書』 「太宗本紀」, “貞觀七年 十一月丁丑, 頒新定『五經』.”

를 편찬함으로써 序·毛傳·鄭玄箋·孔穎達疏가 일체화된 ‘毛鄭之學’이 관학으로 공인되었다.(심경호 1999, 454) 그 후 송대 유가의 주석서로는 주희의 『詩集傳』이 자못 정결하여(양계초 1995, 197-198) 많은 학자들에게 인정받았다. 송대에 확립된 주자의 성리학이 元代에 이어 왔는데, 명나라가 건국되고 3대 왕인 成祖(永樂帝)는 靖難으로 등극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정당화하여 정통성을 회복하고 지배체제를 공고히 할 목적과 선왕의 정책을 계승하여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서적 편찬사업을 추진하였다. 성조는 翰林院을 內閣 機務의 중심으로 삼고 胡廣(1370-1418) 등을 발탁하여 『성리대전』, 『사서대전』, 『오경대전』을 편찬하여 널리 보급하도록 칙명을 내렸다(송일기 2014, 99-100). 마침내 성조 12(1414)년 11월에 詔書를 내려 편찬할 것을 명하고, 예부로 하여금 간행하여 천하에 반사하라고 지시하였다(明 成祖實錄, 성조12년 11월 甲寅).

2. <시경>의 전래

중국에서 성립된 <시경>은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으나 언제 전래되었는지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삼국시대의 사료를 통해 나타나는 유교 관련 기록들을 정리하여 유학의 전래시기를 유추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시경>의 전래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구려 4세기 중엽 소수림왕 2(372)년 왕경에 太學을 세워 유교를 가르쳤는데 경서를 가르치는 오경박사가 있었으며(한영우, 129), 지방에서는 각 거리마다 큰 집을 지어 扁堂이라 부르고 자제들이 혼인 전까지 밤낮으로 이곳에서 독서와 활쏘기를 익히게 하였다. 책은 『五經』,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晉陽秋』, 『玉篇』, 『字統』, 『字林』이 있으며, 『文選』을 매우 귀중히 여겼다⁶⁾(舊唐書, 高麗條). 고구려는 늦어도 4세기에 <오경>이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는 해상을 통해 일찍부터 일본과 교류했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應神 15(284)년 백제 왕이 阿直岐를 보내어 말 두필을 기증했는데, 아직기가 유학의 경전을 해독하므로 태자의 스승을 삼았다고 한다. 그 후 應神 16(285)년 王仁도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주었고, 왕자에게 『효경』과 『논어』를 가르쳤다. 513년 오경박사 단양이를 파견하였고, 516년에는 고안무를 파견했다(금지아 2010, 21-22)고 한다. 백제는 3세기에 일본과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었고 일본에 유학의 경서를 전해 준 것으로 보아 3세기에 이미 유학의 수용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近肖古王 30(375)년 11월의 기록에는, “백제에 개국 이래 문자로 사실을 기록함이 없더니, 이에 이르러 박사 고흥을 얻어 비로소 『書記』를 가지게 되었다⁷⁾(三國史記, 百濟本紀 近肖古王 三十年)”라고 되어 있어 4세기에 史書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6) “各於街衢造大屋 謂之扁堂 子弟未婚之前 晝夜於此讀書習射 其書有五經及史記漢書范曄後漢書三國志孫盛晉陽秋玉篇字統字林有文選尤愛重之”

7)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

聖王 19(541)년에는 南朝 梁으로부터 毛詩博士와 講禮博士를 초빙해서 경학을 講授하였다.(舊唐書, 百濟傳).

또한 1934년에 발견된 壬申誓記石⁸⁾에도 경주의 두 청년이 착한 일을 하기로 맹서하는 가운데 3년 안에 詩, 書, 禮, 傳를 읽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오경>에 대한 이해가 경주의 청년들에게 익숙한 공부였음을 보여 준다. 통일신라에서는 元聖王 4(788)년에 唐의 과거제를 모방하여 讀書三品科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리를 등용하였다. <五經>과 三史, 諸子百家書에 박통한 자가 있으면 超擢하여 등용하였다.(三國史記, 新羅本紀10 元聖王 4年條)

고려시대에 유통되었던 <시경>의 현존본이 없어 아쉽지만 경연에서 <시경>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온다. 예종과 인종 때에 <시경>에 관하여 여러 차례 강론케 하였으며, 충숙왕과 공민왕 때에는 외교문제를 해결할 때 <시경>을 인용하였다(高麗史節要). 恭愍王 19(1370)년에는 成准得이 明에서 준 『대통력』, 『육경』, 『사서』, 『통감』, 『한서』 등을 가져왔고(高麗史, 世家42 恭愍王 19年 5月 甲寅), 權近은 유배지에 있으면서 『입학도설』 및 『오경천건록』을 저술하였다(高麗史, 列傳20, 權近). 또한 조선초 태종대에 권근은 <오경>에 뜻을 달라는 왕명을 받고 사양하였으나 결국 <시경>, <서경>, <역경>의 토를 달았다(世宗實錄, 世宗 10(1428)년 윤4월 18일)는 것을 보면, 권근의 <오경>에 대한 이해가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판본은 조선시대 이후에 간행된 것들뿐이다.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간행되고 유포되었던 <시경>은 明의 永樂帝가 勅撰한 『四書五經大全』의 일부이다. 당시 조정과 유신들의 관심은 온통 이 서적들에 집중되었다. 종래의 여러 주석을 종합하여 엮은 새로운 官撰書로서 가장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천혜봉 2006, 198). 세종은 즉위원(1419)년에 이 서적들을 수입하였고, 동왕 8(1426)년에는 進獻使 金時遇가 明帝가 하사한 『사서오경대전』, 『성리대전』, 『송사』 등을 가지고 왔다(世宗實錄, 세종8년 11월 24일). 동왕 8년부터 간행에 착수하였는데, 가장 먼저 『성리대전』이 경상도에서 완성되었고(世宗實錄, 세종 9년 7월 18일), 경상도에 『주자대전』·『역경』·『서경』·『춘추』를 새기게 하였으며(世宗實錄, 세종 9년 9월 3일), 전라도에서 『시경』과 『예기』를 새겨 완성하였고 그 책판을 주자소에 보관케 하였으며(世宗實錄, 世宗 11년 3월 6일), 강원도에서 『사서대전』 50권을 印進하였다(世宗實錄, 세종 11년 4월 22일). 즉, 영락판 『詩傳大全』을 저본으로 하여 처음으로 전라도에서 완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왕 17(1435)년에는 각 도의 감사에게 『성리대전』과 『사서대전』·『오경대전』은 理學의 淵源임을 강조하고 지방의 향교와 향읍의 선비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종이를 보내면 모두 인쇄해서 보내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世宗實錄, 세종 17년 10월 25일). 현존본을 조사한 결과 세종은 明本(永樂板)을 복각해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뿐

8) 임신년을 학자마다 다르게 연대를 추정하고 있다. 혹자는 진흥왕 13(552)년 또는 진평왕 34(612)년으로 추정하고, 혹자는 성덕왕 31(732)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아니라 甲寅字로도 『시전대전』을 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로 『시전대전』은 조선시대 말기까지 명본 복각본과 활자본 2원체제로 간행되었다.

<사서오경>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어서 간행과 보급이 지속되었는데, 성종 2(1471)년에는 영안도에 <사서>, <오경>, 『통감』, 『소학』 등을 하사하였고(成宗實錄, 성종 2년 7월 26일), 성종 6년에는 평안도 유생에게 <사서오경>을 印送하여 주었다(成宗實錄, 성종 6년 12월 28일). 성종 14(1483)년에는 영안도에 서적이 없다는 정문형의 계에 따라 <시경>, <서경>, <중용>, <대학>의 선본을 보내 諸邑에서 간행토록 하였으며(成宗實錄, 성종 14년 10월 24일), 성종 15(1484)년에 강원도 원주, 강릉에 <사서> 및 <시경>, <서경>을 간행하여 보내주도록 하였고(成宗實錄, 성종 15년 6월 15일), 성종 24(1493)년에는 제주에 <사서>, 『모시』, 『소학』 각 3권을 반사하였다(成宗實錄, 성종 24년 9월 5일). 연산군 2(1496)년에는 <사서오경>을 간행하여 영안도에 하사하였고(燕山君日記, 연산군 2년 3월 2일), 중종 9(1514)년에는 성균관 존경각의 화재로 <사서오경>등 여러 서적을 간행하여 소장하였으며(中宗實錄, 중종 9년 12월 2, 3, 9일), 동왕 37(1542)년에는 <사서삼경>을 다수 인출하여 평안도와 황해도에 보급하였다(中宗實錄, 중종 37년 4월 5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정에서는 명본 <사서오경대전>을 수용하고 보급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경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고려 말부터 본문의 현토언해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선조조에 이르러 교정청에서 <사서삼경>의 音釋을 교정하고 諺解를 마쳤다(宣祖實錄, 선조 21년 10월 29일).

임진왜란 후 중외의 서적이 散逸되고 소실되어 남은 것이 없으므로 각도에 널리 서적을 구하였다. 선조 37(1604)년에 성균관이 예조에 계하기를, 충청도에서 『시전』, <사서>, 『가례』를, 전라도에서 <사서>, 『주역』, 『가례』, 『십구사략』을, 경상도에서 <사서>, <삼경>, 『통감』, 『가례』, 『심경』등의 책을 모두 새로 간행하고 있으니 각도에서 두세 질을 성균관에 보내달라고 청하였다. 이에 예조에서는 성균관의 사정과 『詩傳』의 구하기 어려움을 상세히 왕에게 보고하면서 公州에서 간행하는 『시전』을 별도로 50~60권을 인출하여 반사할 것을 청하였고, 이를 시행하였다(宣祖實錄, 선조 37년 12월 2일). 17세기에 들어 사회의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현종 9(1668)년에 왕은 성균관에 經書校正廳을 설치하고 경서의 잘못된 字劃과 音義를 바로잡아 교정하고(顯宗實錄, 현종 9년 8월 7일 ; 顯宗實錄, 현종 10년 8월 3일), 경서를 간행하였다. 이 때 성균관에서 간행한 『시전대전』이 실물로 남아 있다. 인쇄가 정교하고, 명본 영락판에서 볼 수 있는 표점이 들어 있다.

또한 정조는 동궁시절부터 활자주조와 서적간행을 주도하였는데, <시경>의 독자적 수용을 보여주기도 한다. <오경> 가운데 늘 사색의 실마리가 될 만하다고 여겨 읽고 읊던 것들을 뽑은 뒤 5卷으로 편집하여 篇帙을 간략하게 하고 글자 모양을 확대하여 읽기에 편리하게 하였는데, <주역>에서 5卦와 2傳을 뽑고, <서경>에서 虞書 5편 · 夏書 1편 · 商書 3편 · 周書 3편

을 뽑고, <시경>에서 國風 21편·小雅 19편·大雅 17편·頌 10편을 뽑고, <춘추>에서 10편을 뽑고, <예기>에서 樂記·大學·中庸의 3편을 뽑는 등 모두 99편을 뽑아서 『五經百篇』을 완성하였다(正祖實錄, 정조 22년 7월 29일). 이뿐만 아니라 정조는 주희의 詩說의 정통성과 우위성을 입증하려는 작업을 하였는데, 규장각 초계문신제도를 활용하여 洪仁浩, 徐有榘, 丁若鏞 등 여러 문신들과 <시경>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을 검토케 하여 『詩經講義』 9권(寫本)을 엮었다(심경호 1999, 528-529).

Ⅲ. 책판목록에 수록된 <시경>

조선시대에 간행되고 유포되었던 <시경> 판본의 조사를 위해 먼저 2차 자료인 책판목록을 통해 지역별 간행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누락된 판본이 있을 수도 있고, 목록에 수록된 서명과 실제의 서명이 다를 수도 있으며, 간행처와 책판의 보관처가 다를 수 있으나 대체로 당시의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귀중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을 분기점으로 그 전과 후로 나누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1. 임진왜란 전의 책판목록의 <시경>

임진왜란 전에 작성된 책판목록에 나타난 <시경>의 책판 소장 현황을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임진왜란 전 책판목록에 수록된 <시경>

冊板目錄(刊行年)/板種	地域	地名	書名
攷事撮要(1568년)/을해자본 攷事撮要(1576년)/을해자본	全羅道	扶安	詩傳大文
		古阜	詩傳
	慶尙道	榮川	詩大文
		密陽, 禮泉	詩傳
攷事撮要(1576년)/목판본	全羅道	扶安	詩傳大文
		古阜	詩傳
	慶尙道	榮川	詩大文
		密陽, 禮泉	詩傳
	黃海道	海州	詩大文
攷事撮要(1585년)/목판본	全羅道	扶安	詩傳大文
		古阜	詩傳
	慶尙道	榮川	詩大文
		密陽, 禮泉	詩傳
	黃海道	海州	詩大文
平安道	平壤	詩大文, 詩傳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8권 제1호)

임진왜란 전 책판목록에 나타난 <시경>의 서명은 『시전』, 『시대문』, 『시전대문』으로 나타난다. 1576년 목판본 『고사촬요』에는 기존 1568년본과 비교해 볼 때 황해도 해주의 책판이 추가되었고, 1585년 목판본 『고사촬요』에서는 평안도 평양의 책판이 추가되었다. 임진왜란 전에 <시경>의 책판이 있던 곳은 전라도의 부안, 고부, 경상도의 영천, 밀양, 예천, 황해도의 해주, 평안도의 평양 등 7곳이다. 경상도에서 책판을 가장 많이 소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존본은 없다.

2. 임진왜란 후의 책판목록의 <시경>

임진왜란 후에 작성된 책판목록에 나타난 <시경>의 책판 소장 현황을 <표 2>로 정리하였다.

<표 2> 임진왜란 후 책판목록에 수록된 <시경>

冊板目錄(寫年 및 刊行年) ⁹⁾	地域	地名	書名	
古書冊板有處攷(1700년경)	慶尙道	禮泉	小全毛詩	
		榮川	詩大文	
		密陽	詩傳	
慶尙道冊板(1730년경)	慶尙道	嶺營, 安東, 晉州	詩傳	
冊板置簿冊(1740년경)	全羅道	光州, 順天	詩傳	
	慶尙道	大丘	詩傳	
	咸鏡道	咸鏡監營	詩傳	
三南所藏冊板(1743년경)	慶尙道	慶尙監營	三經	
完營冊板目錄(1759년)	全羅道	光州	詩傳	
	慶尙道	慶尙監營	三經	
各道冊板目錄(1778년경)	慶尙道	慶尙監營(大丘)	詩傳大全	
		北漢	詩傳大全	
	京畿道	南漢	詩傳	
古冊板有處攷(1780)	平安道	寧邊	詩傳	
	京畿道	廣州郡	詩傳	
		密陽郡	詩	
		慶尙道	榮州郡	詩大文
		禮泉郡	小全毛詩	
林園十六志 京外鏤板	京畿道	北漢太古寺	三經四書大全	
	慶尙道	嶺南觀察營	三經四書大全	
	咸鏡道	關北觀察營	三經四書大全	
	平安道	寧邊府	三經四書大全	
	京畿道	南漢開元寺	三經四書傳註	
鏤板考(1796년)	京畿道	北漢太古寺	詩傳大全(三經四書大全)	
		南漢開元寺	詩集傳	
	慶尙道	嶺南觀察營	詩傳大全(三經四書大全)	
	咸鏡道	關北觀察營	詩傳大全(三經四書大全)	
平安道	寧邊府	詩傳大全(三經四書大全)		

冊板目錄(寫年 및 刊行年) ⁹⁾	地域	地名	書名
諸道冊板錄(1797년경)	慶尙道	慶尙監營	三經
	咸鏡道	咸鏡監營	詩傳
各道冊板目錄(1840년)	慶尙道	慶尙監營(大丘)	詩傳大全
	京畿道	北漢	詩傳大全
		南漢	詩傳
	平安道	寧邊	詩傳
	全羅道	全州(私板)	詩傳
完營客舍冊板目錄(1885년)	全羅道	全州(私板)	詩傳大全, 三經奎壁
		寶城	詩傳

임진왜란 후에 책판목록에 나타난 <시경>의 서명은 『시』, 『소전모시』, 『시전』, 『시전대전』, 『시집전』, 『시전규벽』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상도 예천의 『소전모시』는 임진왜란 전의 『고사촬요』에서는 『시전』으로 수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후에 작성된 책판목록은 전체 10종 중 8종이 18세기에 작성된 것이다. 왜란과 호란을 겪은 후 사회가 안정된 18세기에, 산일되거나 소실된 서적들을 구비하고 지방 곳곳에서 책판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에 <시경>의 판본을 소장한 곳으로 경상도에서는 경상감영, 예천, 영천, 밀양, 안동, 진주 등 6곳이고, 전라도에서는 광주, 순천 등 2곳이며, 경기도의 광주군, 남한 개원사와과 북한 태고사 등 3곳, 함경도의 함경감영과 평안도의 영변부 등이다. 경상감영, 북한 태고사, 함경감영, 영변부에서는 『삼경대전』이 함께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는 경상도의 경상감영, 경기도의 남한(개원사 또는 남한산성)과 북한(태고사 또는 북한산성), 평안도의 영변, 전라도의 전주(私板)와 보성조에 <시경>이 수록되어 있다.

『임원경제지』 부록으로 수록된 「경외루판」에서는 <삼경사서대전>과 <삼경사서전주>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삼경사서대전>은 명의 永樂奉勅撰이고 <삼경사서전주>는 英廟朝(영조)에 새겼는데 <易>은 程傳朱子本義, <書>는 蔡傳, <詩>는 朱子集傳을 새겼다고 되어 있고 그 아래에 南漢 開元寺에 소장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정형우, 윤병태 1995, 855-856). 즉 남한에서 새긴 책판은 주자집전을 새긴 『시집전』이고 그 간행시기는 영조조인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들어 전라도의 전주조에 私板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1840년에 작성된 『각도책판목록』에 全州私板의 『시전』이 처음 수록되어 하경룡장판의 간기를 추정할 수 있고, 『완영객사책판목록』에서는 전주사판으로 『삼경규벽』이 처음으로 수록되어 『삼경규벽』의 간행시기

9) 표에 열거한 책판목록은 정형우, 윤병태 공편저의 『한국의 冊板目錄』(서울: 보경문화사), 1995를 참고하였는데, 『諸道冊板錄』의 경우 작성연대가 위의 책에서는 1750년경으로 되어 있으나, 수록된 책판 중 全羅監營 新備條에 乙卯刊 『朱書百選』과 丁巳刊 3종이 들어 있다. 『주서백선』은 정조가 1794년에 처음 간행했으므로 가장 가까운 을묘년과 정사년으로 간행연대를 추정하면 1797년경이 되므로 작성연대를 1797년경으로 추정하였다.

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현존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경>의 목판본은 경상감영본, 영변부본, 북한성본, 남한성(영보각)본, 광주목본, 전주사판 등이다.

이 밖에도 1653년에 작성된 『탐라지』에 <사서>와 <사서언해>, 『서전대문』, 『시전대문』이 수록되어 있다¹⁰⁾(윤봉택 2007, 82-83).

IV. 한문본 <시경>의 현존본 조사

이 장에서는 현존하는 한문본 <시경> 판본을 조사하고 지역별 및 시기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국내외 대학도서관과 개인문고의 온라인 고서목록과 실사를 통해 <시경>에 관한 서목을 작성하고, 판본들의 형태사항을 비교하여 현존하는 한문본 <시경>의 판본을 <표 3>으로 정리하였다.

<표 3>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문본 <시경> 판본의 조사현황

書名	板種	刊行處	刊行年	板項				卷冊數	所藏處
				邊欄	半郭	行/字	魚尾		
詩	木板本	南漢永寶閣	1758	雙邊	23.7×17.0	6/17	上二葉花紋	20卷8冊	국중
詩	初鑄甲寅字	校書館	1435	雙邊	26.2×16.4	10/18	黑口, 下向黑	零本1冊	규장각
	庚辰字	校書館	1587	雙邊	26.3×16.9	10/18	三葉花紋		일본 궁내청
	戊午字	校書館	1623	雙邊	26.5×17.0	10/18	三葉花紋	零本2冊	계명대
	訓鍊都監字	訓鍊都監	17C	雙邊	26.6×16.5	10/19	三葉花紋	零本2冊	국중
	戊申字	校書館	18C	雙邊	24.7×17.2	10/17	二葉花紋	20卷10冊	국중
傳	戊申字	校書館	1764以後	單邊	25.7×17	10/17	二葉花紋	20卷10冊	규장각
	後期芸閣印書體字	校書館	18C	左右雙邊	21.4×12.7	10/20	上二葉花紋	20卷4冊	국중
大	丁酉字	校書館	1793	單邊	24.8×16.8	10/18	上二葉花紋	20卷10冊	규장각
	木活字	未詳		雙邊	23.1×14.5	10/21	二葉花紋	零本2冊	고려대
全	木板本	寧邊府	乙丑1745	雙邊	23.7×18.3	10/18	二葉花紋	零本8冊	경기대
	木板本	未詳	1764以後	單邊	23.0×16.7	10/18	上二葉花紋	零本2冊	연세대
	木板本	內閣	1820	單邊	24.6×17.0	10/18	上二葉花紋	零本1冊	한양대
	木板本	嶺營	戊子1828	單邊	22.9×16.7	10/18	上二葉花紋	20卷10冊	영남대

10) 『임원경제지』부록인 경외루판에는 ‘經類’의 첫머리에 <삼경사서대전> 90권 항목을 두고 그 아래에 책판소장 상황을 열거하였는데 제주목에는 <사서>만을 수록하고 있다. 1653년에 작성된 『탐라지』에 <시전대문>이 수록되어 있지만 이후에 작성된 읍지에서는 더 이상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1677년 제주목의 화재로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書名	板種	刊行處	刊行年	板項				卷冊數	所藏處
				邊欄	半郭	行/字	魚尾		
	木板本	未詳	未詳	單邊	25.3×18.0	10/18	混葉花紋	20卷10冊	국중
	木板本	鑄字所	1429	雙邊	25.5×17.0	10/22	黑口, 黑	20卷12冊	연세대
	木板本	漢陽	1561願	雙邊	24.9×16.8	10/22	黑口, 黑	20卷10冊	봉좌
	木板本	成均館	壬子 1672	雙邊	24.9×18.6	10/22	黑口, 黑	零本2冊	전남대
	木板本	北漢城	丙申 1716	單邊	24.9×17.8	10/22	二葉花紋	零本4冊	계명대
	木板本	嶺營	乙丑 1745	雙邊	24.9×18.1	10/22	有紋黑	零本1冊	영남대
	木板本	嶺營	庚辰 1760	單邊	23.3×18.5	10/22	二葉花紋	20卷10冊	계명대
	木板本	未詳	1764序	單邊	22.8×17.1	10/22	二葉花紋	20卷10冊	규장각
	木板本	嶺營	戊午 1798	雙邊	23.7×18.3	10/22	二葉花紋	20卷10冊	규장각
	木板本	河慶龍	庚午 1810	雙邊	22.8×18	10/22	內向黑	20卷10冊	규장각
	木板本	光州牧	辛酉	雙邊	24.9×18.1	10/22	混葉 花紋	零本9冊	전남대
	木板本	嶺營	戊辰	雙邊	22.7×18.1	10/22	黑	零本8冊	계명대
	木板本	未詳	未詳	雙邊	23.0×17.0	10/22	黑口, 黑	零本1冊	연세대
	木板本	未詳	未詳	雙邊	24.7×18.2	10/22	二葉花紋	零本2冊	국중
	木板本	未詳	未詳	單邊	21.0×17.0	10/22	混葉花紋	零本1冊	국중
	木板本 (奎壁)	全州 私板	19C	單邊	15.3×12.3	12/30	內向混	20卷6冊	규장각
詩傳大文	甲辰字	校書館	16C	雙邊	20.6×14.5	12/19	黑口,黑	2卷1冊	성암
	訓練都監字	訓練 都監	17C	雙邊	25.7×16.3	9/17	混葉花紋	零本1冊	성균관대
	戊申字	校書館	18C	雙邊	24.7×17.0	10/18	二葉花紋	2卷2冊	성암
	木板本	未詳	未詳	單邊	21.9×17.0	10/20	黑口, 花紋	零本1冊	국중
	木板本	未詳	未詳	單邊	21.5×16.5	10/21	混葉花紋	2冊	장서각
	木板本	未詳	未詳	單邊	23.9×17.2	10/21	黑口,黑	2卷1冊	연세대
詩傳正文	木板本	未詳	未詳	雙邊	19.1×11.3	12/26	黑口,黑	2卷2冊	연세대
	壬辰字	芸香閣	1775	雙邊	24.8×16.9	10/18	上二葉花紋	2卷2冊	규장각
	木板本	內閣	1820	單邊	23.3×16.9	10/18	上二葉花紋	2卷2冊	경기대
	木板本	未詳	未詳	雙邊	19.4×14.3	9/19	三葉花紋	零本1冊	한양대
	木板本	未詳	未詳	單邊	24.5×17.0	10/18	二葉花紋	零本1冊	인수문고
木板本	未詳	未詳	雙邊	23.1×17.0	10/21	黑口,黑	零本1冊	국중	

조사한 결과 한문본 <시경>의 판본은 현재 42종이 있는데, 서명별로 구분하면 『詩』 1종, 『詩傳大全』 29종, 『詩傳大文』 7종, 『詩傳正文』 5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본 영락판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한 『시전대전』이 가장 많이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간행처가 확실한 27종 중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에서 18종, 경상지역에서 5종, 전라지역에서 3종, 北韓의 영변부 1종이 실물로 존재한다. 경기지역에서는 교서관, 주자소, 성균관, 훈린도감, 남한 영보각, 북한산성, 내각 등에서 간행하였고 경상지역에서는 감영에서

여러 차례 간행하였으며 전라지역에서는 광주목과 전주사판으로 간행하였고 북한지역의 영변부에서 간행한 판본이 남아 있다. 또한 간행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25종 중 15세기에 간행된 것은 2종, 16세기에 간행된 것은 3종 17세기에 간행된 것은 4종, 18세기에 간행된 것은 11종, 19세기에 간행된 것은 5종이다. 18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계통별 분석

조선시대에 간행된 漢文本 <시경> 판본들의 서명을 구분하고 형태적 특징을 비교하여 <표 4>와 같이 계통을 분류하였다. 서명은 본문이 시작되는 곳의 권두서명을 채택하였고, 그 서명별로 분류한 결과 한문본 42종의 판본 중 『詩』는 1종¹¹⁾, 『詩傳大全』은 29종, 『詩傳大文』은 7종, 『詩傳正文』은 5종이었다.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간행된 한문본 <시경>은 『詩傳大全』임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 명본 복각본 계통의 『시전대전』과 그 외의 <시경> 판본을 구분하여 계통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4> 한문본 <시경> 판본의 계통별 분류

區分	書名	系統	板本數	
漢 文 本	詩	木板本	1	
	詩傳大全	明本覆刻本	14	
		活字本	9	
		活字本覆刻本	5	
		奎璧本	1	
	詩 經	詩傳大文	活字本	3
			木板本	4
		詩傳正文	活字本	1
	活字本覆刻本		1	
	합계		木板本	3
			42	

1. 명본 복각본 계통 『詩傳大全』

현존본 『시전대전』 29종 중 명본복각본 계통은 14종으로 48%를 차지할 만큼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세종조에 전래된 영락판은 명의 성조(영락제)의 칙명으로 한림원 학사 호광 등

11) 한문본 판본 중 1종이 남아 있는 『詩』은 『詩集傳』 또는 『詩傳』이다. 주희가 집전한 <시경>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에서 “詩傳”을 검색하면 30종이 넘는 결과가 나오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다수는 필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詩傳』은 때로 『詩傳大全』을 가리키기도 해서 거의 통일서명처럼 사용되었다.

이 편찬하였는데, 그 형태적 특징이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행격은 10行22字로 되어 있고 註雙行이며, 魚尾는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로 되어 있고 인쇄상태가 선명하고 정교하다. 또한 본문과 註에 표점이 표시되어 있다. 조선에서 간행된 명본복각본 계통의 판본을 <표 5>로 정리하였고, 각각의 판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가. 판본-1 (1429년 주자소본)

연세대((귀) 473 0)와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04-10)에 소장된 『시전대전』은 全20卷12冊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태적 특징은 변란은 사주쌍변이고, 반곽 25.5 × 17.0 cm이며, 행격은 10행22자 註雙行이고, 어미는 상하대흑구, 상하내향흑어미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책에는 凡例와 詩傳序(朱熹), 詩傳大全綱領, 詩傳大全圖 등이 들어 있고, 두 번째 책에는 詩序가 수록되어 있으며 세 번째 책부터 본문이 시작된다. 영락판에서 보이는 것처럼 표점이 찍혀져 있다. 장서각소장본(K1-40)¹²⁾과 비교해 볼 때, 책의 구성과 형태적 특징이 일치하므로 1429년에 주자소에서 간행된 명본복각본의 초기본으로 추정한다. 명본 복각본 14종 중 全20卷12冊으로 된 책은 판본-1밖에 없다. 다른 판본들은 全20卷10冊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명본복각본 계통의 <시경> 판본

板本番號	刊行事項		板式事項			刊記	所藏事項	
	刊行處	刊行年	邊欄	半郭	魚尾		所藏處	請求番號
1	鑄字所	1429	雙邊	25.5×17.0	黑口, 黑	未詳	연세대	(귀) 473 0
2	漢陽	1561 頒	雙邊	24.9×16.8	黑口, 黑	嘉靖四十年 辛酉 正月日 自京印頒	봉좌 문고	蓬左 104-27
3	成均館	壬子 1672	雙邊	24.9×18.6	黑口, 黑	壬子五月日 成均館開刊	전남대	송원OC 1D 시 73ㄱ4
4	北漢城	丙申 1716	單邊	24.9×17.8	二葉花紋	丙申五月 北漢城開刊	계명대	180.35-호광ㄸ
5	嶺營	乙丑 1745	雙邊	24.9×18.1	有紋黑	乙丑四月 嶺營重刊	영남대	가람古 181.1 H65s
6	嶺營	庚辰 1760	單邊	23.3×18.5	二葉花紋	庚辰七月 嶺營重刊	계명대	180.35 호광시ㄸ
7	未詳	1764 序	單邊	22.8×17.1	二葉花紋	未詳	규장각	奎중254의1
8	嶺營	戊午 1798	雙邊	23.7×18.3	二葉花紋	戊午正月 嶺營重刊	규장각	812.11 22

12) 장서각소장본(K1-40)은 명나라 內府刻本이다. 인쇄가 정교하고 첫 번째 책의 '詩傳大全綱領' 첫 면과 두 번째 책부터 각 책의 첫 면에 '欽文之璽'가 날인되어 있다. 표지는 조선에서 改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책이 중국의 江西省도서관 소장본에도 동일한 황제인이 날인되어 있어(송일기 2014, 111), 조선 세종대에 명나라에서 하사한 책으로 보인다.

板本番號	刊行事項		板式事項			刊記	所藏事項	
	刊行處	刊行年	邊欄	半郭	魚尾		所藏處	請求番號
9	全州 河慶龍	庚午 1810	雙邊	22.8×18	內向黑	歲庚午仲春 開刊	규장각	奎중 252
10	光州牧	辛酉	雙邊	24.9×18.1	混葉花紋	辛酉三月日 光州牧開刊	전남대	OC 1D-시73ㅎ
11	嶺營	戊辰	雙邊	22.7×18.1	黑	戊辰六月 嶺營重刊	계명대	(고) 180.35 호 광시전
12	未詳	未詳	雙邊	23.0×17.0	黑口, 黑	未詳	연세대	(귀) 778 0
13	未詳	未詳	雙邊	24.7×18.2	二葉化紋	未詳	국중	古1233-73
14	未詳	未詳	單邊	21.0×17.0	混葉花紋	未詳	국중	古1233-74

나. 판본-2 (봉좌문고본)

봉좌문고 소장본(蓬左 104-27)은 판본-1과 마찬가지로 명본복각본의 초기본으로 형태적 특징은 변란은 四周雙邊이고, 半郭 24.9 × 16.8 cm이며, 행격은 10행22字 註雙行이고, 魚尾는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로 되어 있다. 각 卷次를 살펴볼 때, 刻字에 剋缺이 생겼는데 그 중에 판독이 부분적으로 어려운 곳이 들어 있으며 완결이 심한 곳은 새로 補刻하여 혼입시키고 있다(천혜봉, 64). 첫 책의 표지 이면에 묵서로 “嘉靖四十年 辛酉(명종16년) 正月日 自京印頒 詩傳 春秋 論語 中庸 大學 靈山書”라는 識記가 있어서 명종 16(1561)년에 한양에서 인쇄했음을 알 수 있다. 판본-1과 판본-2는 임진왜란 전에 간행한 것이다.

다. 판본-3 (成均館本)

왜란과 호란 이후에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목판본인, 성균관에서 간행된 『시경대전』이다. 판각이 정교하고 영락관에서 볼 수 있는 표점이 찍혀 있다. 형태적 특징은 판본-1, 판본-2와 半郭의 크기만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나머지는 동일하다. 전남대 소장본(송원OC 1D 시73ㅎ4)에는 권말에 “壬子五月日成均館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성균관대 소장본(稀A9C-4h) 『中庸章句大全』에는 “庚戌三月成均館開刊”이라는 간기가 있고, “康熙十一年(顯宗 13(1672)) 八月十六日內賜司僕寺正李端錫中庸一件...”이라는 내사기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종은 경서교정청을 성균관에 설치하고 경서의 잘못된 字劃과 音義를 바로잡아 교정하게 하였다. 경서의 교정을 마치고 경서를 간행했는데, 위의 내사기로 인해 중용은 경술년인 1670년에 간행되었고 『시전대전』은 임자년인 1672년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판본-4 (北漢城本)

계명대 소장본(180.35-호광ㄱ) 『시전대전』은 권말에 “丙申五月 北漢城開刊”이라는 간기가 있고,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영락관에서 볼 수 있는 표점은 찍혀 있으나 위의 판본-1,

판본-2, 판본-3과는 다른 변화가 있다. 즉 변란은 四周單邊이고 어미는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로 되어 있어서, 변란과 어미의 형태가 바뀌었다. 『누판고』에 北漢의 태고사에 <사서삼경>과 언해본의 책판을 소장하고 있다는 기록과 『北漢誌』에 북한 태고사에서 私費로 <사서삼경 및 언해>, 『소미통감』, 『십구사략』 등 모두 5700판을 판각하였다(안현주 2007, 141-142)는 기록이 있는데, 『북한지』는 1745년에 편찬하였고 『누판고』는 1796년에 작성된 사실로 미루어 丙申年은 1716년으로 추정하였다.

마. 판본-5, 6, 8, 11 (嶺營本)

경상감영에서는 임진왜란 후에 『사서대전』과 『사서언해』를 여러 차례 간행하였다(안현주 2007, 233). 현존본 조사에서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시경대전』이 5종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중 권말에 “戊子新刊 嶺營藏板”이라는 간기가 있는 판본은 10行18字본으로 활자본을 복각한 것인데 이 판본을 제외하고 4종이 모두 10行22字로 된 명본 복각본이다. 그 4종에는 “乙丑四月 嶺營重刊”, “庚辰七月 嶺營重刊”, “戊午正月 嶺營重刊”, “戊辰六月 嶺營重刊”이라는 간기가 있는데 그 형태적 특징은 어미만 서로 다를 뿐 대동소이하다. 嶺營本은 여러 번 重刊하여 명본 복각본의 초기의 모습과는 다르게 표점도 없어지고 글자의 새김이 정교하지 못하며 사이사이 많이 낡은 판자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여러 차례 간행한 嶺營本이 많은 대학도서관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당시 경서의 수요를 짐작할 수 있다. 영영본의 간행년도는 선행연구(안현주 2007, 159-161 ; 송일가정왕근 2004, 212)에 의거하여 추정하였는데, 戊辰年 간행본외의 3종은 18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바. 판본 7(未詳 1)

규장각 소장본(규254의1) 『시전대전』은 20卷10冊으로 되어 있으며, 형태적 특징은 변란은 四周單邊이고, 반곽은 22.8 × 16.8 cm이며, 행격은 10行22字 註雙行이고, 어미는 上下二葉花紋魚尾로 되어 있다. 卷首에 “御製特題詩經…歲甲申(1764)…金尙喆奉教謹書”라는 영조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어서 1764년 이후에 간행되었다.

사. 판본 9(全州 河慶龍本)

전국의 여러 대학도서관에 소장된 이 판본은 방각본인 전주 하경룡판이다. 경상도에서는 감영본이 여러 차례 간행된 것에 비하여 전라도에서는 임진왜란 이후에 광주와 순천, 전주사관에 <시경>의 책판이 소장되었다고 수록되어 있으나, 현존본으로는 광주목에서 간행된 판본 10과 하경룡가에서 방각본으로 간행한 『시전대전』이 있다. 하경룡본의 형태적 특징은 10行22字본이긴 하나 紙質이 좋지 못하고 사이사이 판이 마모된 것도 보인다. 복각을 거듭하여 초기의

모습과 비교하면 많이 변형되었다. 도서관 목록마다 1870년 또는 1810년으로 목록이 되어 있는데, 1840년에 작성된 『각도책판목록』에 의거하여 1810년으로 간행년도를 추정하였다.

아. 판본 10(光州牧本)

전남대 소장본(OC 1D 시73호) 『시전대전』의 권말에는 “辛酉三月日 光州牧開刊”이라는 간기가 있어서 신유년에 광주목에서 간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나 정확한 시기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형태적 특징이 임자년에 간행된 성균관본과 매우 흡사하다. 본문에 표점이 찍혀 있고, 권말의 간기부분도 그 형식과 書體가 매우 닮아 있으나 성균관본에 비해 정교함이 떨어진다.

자. 판본 12(未詳 2)

연세대 소장본((귀) 778 0) 『시전대전』은 全20卷10冊 중 1책이 남아 있다. 간행처와 간행년을 알 수 없는 판본이나, 그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판본 2와 아주 흡사하다. 명본 복각본의 초기본으로 판단된다.

차. 판본 13(未詳 3), 14(未詳 4)

판본 13과 판본 14는 각각 2책, 1책만 남아 있어서 간행처나 간행년을 알 수 없지만, 10行 22字本으로 명본 복각본이다.

2. 기타 계통

현존본 42종 중 명본 복각본 『시전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판본들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가. 『시전대전』(명본 복각본을 제외한 판본)

위에서 언급한 명본 복각본을 제외한 『시전대전』은 활자본과 활자본의 복각본, 소형책자인 규벽본이 있다.

1) 활자본계통

조선시대에 활자로 간행된 『詩傳大全』은 9종이 남아 있다. 임진왜란 전에 갑인자본, 경진자본이 간행되었고, 임진왜란 후에 무오자본, 훈련도감자본, 무신자본 2종, 후기운각인세체자본, 정유자본, 목활자본이 간행되었다.

규장각에 소장된 갑인자본(一叢高貴181.1 H65si)은 활자본 중 最古本이다. 판식의 특징을 살펴 보면, 邊欄은 四周雙邊으로 되어 있고, 半葉은 10行18字로 배열되어 있으며 黑口, 下向

黑魚尾가 있다. 卷末에 權近, 卞季良, 金鑣의 跋文이 있고 맨 마지막 줄에 “宣德十年(1435)四月日印出”이라는 刊記가 있다. 경진자본, 무오자본, 정유자본은 갑인자본과 같은 10行18字본이다. 즉 갑인자의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여 인쇄한 책이다. 훈련도감자본은 10行19字, 무신자본은 10行17字, 후기운각인서체자본은 10行20字, 목활자본은 10行21字의 行字數를 보인다. 활자본들은 明本의 판식을 취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다양한 행격을 보이고 있다.

2) 활자본복각본 계통

활자본을 복각한 판본은 5종이 남아 있는데, 5종 모두 10行18字本이다. 평안도 영변부에서 간행한 판본과 정유자복각본 등 어미와 광곽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맨 처음에 활자본으로 간행된 초주갑인자의 판식을 그대로 보여 준다.

3) 奎壁本

규장각 소장본(奎中 2342) 『시전대전』의 표지서명은 『三經奎壁』으로 되어 있고, 판심제는 『詩』이다. 크기는 반곽이 15×12.4 cm이고 반엽에 12行30字로 되어 있다. 일반 서책의 절반 크기에 글자는 더 촘촘히 배열되어 있다. 규벽본은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보관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부피가 작아 휴대하기에 편리하고 과거시험 준비용으로 수요가 많아 널리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규장각 소장본(奎中 2337, 2338) 『예기규벽』에 “戊辰夏開刊” 간기가 있어서 『시전대전』의 규벽본도 이 무렵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완영객사책판목록』(1885)에 전주의 私板條에 『삼경규벽』의 책판이 수록된 것을 보면 이와 가까운 무진년은 1868년이어서 『시전대전』의 규벽본도 이 무렵에 간행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 『詩』

조선시대에 간행된 <시경>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朱熹 集傳本이다. 일반적으로 『詩傳』 또는 『詩集傳』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규장각(奎中 278)과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04-7)에 소장되어 있다. 권두서명은 『詩』이고 版心題는 『詩傳』으로 되어 있다. 주희의 서문과 詩綱頌이 들어 있고, 권말에 考異가 수록되어 있다. 全 20卷8冊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곽은 四周雙邊, 半葉에 6行17字로 배열되어 있으며 上二葉花紋魚尾의 형태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판식이 규장각에 소장된 『주역본의』(奎中986-v.1-4)에서도 보인다. 이 책의 권두 첫장 안쪽에는 <三經四書>라 쓰고 그의 右에는 “崇禎三甲戌 奉教新刊”, 그의 左에는 “南漢永寶閣藏板”이라고 각기 小字로 쓰여 있는데 英祖 30(1754)년에 간행한 것이다. <사서삼경> 모두 대전본이 아닌 주희의 집주본이라는 특징을 보이는 판본이다. 『누판고』에 南漢 開元寺에 『詩傳』 책판이 소장되어 있다고 수록되어 있다.

다. 『詩傳大文』

『시전대문』은 『시전대전』이나 『시집전』보다 소량인 2卷2冊의 체재로 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경>의 본문에 주희의 주석이 간략하게 들어가 있어서 본문 위주의 경서임을 알 수 있다. 선조와 경연에서 기대승은 영락제가 칭찬한 『사서대전』·『오경대전』 및 『성리대전』이 朱子의 뜻을 모르고 撰修한 것이 많고, 『詩』·『書』·『論語』의 輯註는 先儒의 논의와 어긋나는 곳도 많이 있다고 지적하고, 세종이 만년에 집주는 보지 않았고, <四書>의 경우, 大文과 大註만을 인출하여 보았는데, 홍문관에도 이 책이 있다(宣祖實錄, 선조 2(1569)년 4월 19일)라고 하였다. 또한 선조가 이율곡에게 공부 방법을 물어 보았는데 이이는 우리 유학의 글에서 그 착실한 이치를 찾았다고 하면서, 문장을 위하여 읽은 것이 아니었으며, 지금 문장을 짓는데 대략 文理가 이루어진 것도 역시 별도로 공부를 한 일은 없고, 다만 일찍이 韓文·『고문진보』와 <시경>·<서경>의 大文을 읽었을 뿐이라(宣祖實錄, 선조 8(1575)년 6월 24일)고 한 것을 미루어 보아 조선초부터 경서의 주석보다는 대문을 읽고 공부하는 수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존본 7종이 있는데, 활자본 3종과 목판본 4종이 있다. 활자본은 갑진자본, 훈련도감자본, 무신자본이 있고, 목판본은 10行20字본 1종, 10行21字본 2종, 12行26字본 1종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일산古1233-19)에 소장된 무신자본은 2권2책인데, 책차 표시가 乾, 坤으로 되어 있다. 표시 다음에 바로 본문이 시작되는데, 卷上은 國風 周南에서 彤弓 什編까지, 卷下는 祈父什에서 商頌까지로 되어 있다. 책판목록을 살펴보면 임진왜란 이전에 부안, 영천, 해주, 평양에 『시전대문』의 책판이 있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영천(지금의 영주)에 책판이 소장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활자본은 중앙의 교서관과 훈련도감자에서 간행하였고, 목판본들은 정확한 간기가 없지만, 위의 지방에서 간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유통된 성리학의 경서 중 『논어대문』 1종, 『맹자대문』 7종, 『대학대문』 2종, 『중용대문』 2종이 실물로 남아 있다(안현주 2007, 250-269). 『맹자대문』과 『시경대문』이 7종이 남아 있다는 것은 그 수요를 대변해 준다.

라. 『詩傳正文』

『시전정문』은 正祖의 명으로 <시경>의 정문만을 뽑아 편찬한 책으로 『三經四書正』에 속해 있다. 정조는 “『삼경사서대전』이 51책이나 되는 巨帙이라 요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正文만을 뽑아서 5책으로 만들었다”고 跋文에서 밝히고 있다. 현존본 5종이 있는데, 1775년에 壬辰字로 처음 간행하였다. 규장각(奎中 566, 569)에 소장된 임진자본의 내제지에는 “尊賢閣 校正 祕書閣 新鑄”이라고 되어 있고, 권말에 “卷末: 崇禎三乙未(1775) 芸香閣活印”라고 되어 있어서 1775년 정조가 동궁으로 있을 때 존현각에서 교정을 하고 비서각에서 새겨서 운향각에서 활자로 인쇄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경진년 내각에서 복각본으로 다시 간행하였

고, 그 외 목판본 3종이 있다.

VI. 結論

이상으로 조선시대에 간행되고 유통되었던 <시경>의 판본을 책판목록과 현존본 조사를 통해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시경>의 서명을 살펴보면, 임진왜란 전 책판목록에서는 『시전』, 『시대문』, 『시전대문』으로 나타나고, 임진왜란 후 책판목록에서는 『시』, 『소전모시』, 『시전』, 『시전대전』, 『시집전』, 『시전규벽』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존본에서는 『시』, 『시전대전』, 『시전대문』, 『시전정문』으로 나타났다.

임진왜란 전에 <시경>의 책판이 있던 곳은 전라도의 부안, 고부, 경상도의 영천, 밀양, 예천, 황해도의 해주, 평안도의 평양 등 7곳이며, 임진왜란 후에는 경상도의 경상감영, 예천, 영천, 밀양, 안동, 진주 등 6곳이고, 전라도에서는 광주, 순천, 전주, 보성 등 4곳이며, 경기도의 광주군, 남한 개원사와 북한 태고사 등 3곳, 함경도의 함경감영과 평안도의 영변부 등이다.

현존본 42종 중 명의 영락판 『시전대전』을 저본으로 한 복각본과 활자본 및 활자본 복각본 『시전대전』이 전체의 69%를 차지해 가장 자주 刊印되었고 널리 유통되었다. 그 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명본 복각본은 14종이 있는데, 초기본부터 임진왜란 직후에 간행된 판본들은 영락판과 거의 동일한 형태적 특징을 보여 주는데 후대로 갈수록 복각이 거듭되면서 영락판의 형태와는 거리가 멀어진 판본도 생겨났다. 또한 현존본 명본 복각본은 주자소, 성균관, 북한산성, 경상감영, 광주목, 전주 하경룡가 등에서 간행되었으며, 경상감영본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 활자로 간행된 『시전대전』은 9종이 남아 있는데, 명본의 판식을 따르지 않았으며 갑인자 계열의 활자본은 10行18字本이나 나머지 활자본은 독립적인 행격을 보이고 있다.

南漢 永寶閣에서 간행된 『詩』는 주희의 集傳本이며, 판심제는 『시전』이다. 또한 본문 중심으로 축약한 『시전대문』 7종과 『시전정문』이 5종이 남아 있는데, 이는 전체의 28.5%로 대문류와 정문류의 수요도 있었음을 반증하고 조선 유학자들의 학습 성향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에 <시경>은 시기별로는 18세기에 가장 빈번하게 간행되었고, 또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과 경상지역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는데 경기지역에서는 활자본 중심이었고 경상지역에서는 감영본이면서 명본 복각본이 주를 이루었다.

참고문헌

- 『舊唐書』.
『論語』.
『高麗史』.
『高麗史節要』.
『三國史記』.
「朝鮮王朝實錄」.
『漢書』.
葛兆光. 2013. 『中國思想史』. 이등연 외 역. 서울: 일빛.
금지아. 2010. 『한중역대 서적교류사 연구』. 서울: 한국연구원.
김치우. 2007. 『고사촬요 책판목록과 그 수록 간본 연구』. 서울: 아세아문화사.
金學主 譯. 2010. 『詩經』. 서울: 明文堂.
심경호, 강태권. 2006.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3. 서울: 휴머니스트.
沈慶昊. 1999. 『(조선시대) 漢文學과 詩經論』. 서울: 一志社.
梁啓超. 1995. 『중국고전학입문』. 이계주 역. 서울: 형성사.
정형우, 윤병태. 1995. 『韓國의 冊版目錄』. 서울: 보경문화사.
천혜봉. 2003. 『日本 蓬左文庫 韓國典籍』. 서울: 지식산업사.
한영우. 2011. 『(다시찾는) 우리역사』. 서울: 경세원.
옥영정. 2005. 17세기 간행 四書諺解에 대한 종합적 연구: 간본의 계통과 經書字復刻本の 형태 서지적 분석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32: 361-386.
송일기. 2014. 永樂 內府刻本 <四書大全>의 朝鮮 傳來와 流布.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1): 97-116.
송일기, 정왕근. 2004. 조선시대에 간행된 干支本 大學의 刊年推定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4): 193-213.
이세동. 2009. 『예기(禮記)』의 『오경(五經)』 편입과 그 의의. 『중국어문학』, 5-26.
안현주. 2007. 『조선시대 <사서>의 판본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염종일. 2005. 『朝鮮時代に 刊行된 『春秋』 註解의 諸板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우진웅. 2006. 『조선시대 <맹자>류의 간행과 판본』.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윤봉택. 2007.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일

반대학원 문화재학협동과정.

정왕근. 2003. 『朝鮮時代に 刊行된 『大學』의 板本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국사편찬위원회. <<http://history.go.kr>> [인용 2017. 2. 3].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인용 2017. 1. 5].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인용 2016. 12. 1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전자도서관. <<http://lib.aks.ac.kr>> [인용 2017. 1. 5].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ook of Tang.

The Analects.

Goryosa.

Goryosajulyo.

SamkukSaki.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Book of Han.

Kal, Chokwang. 2013. *The history of Chinese Thoughts*. Translated by Lee, Dungeyon etc. Seoul: ILBIT.

Kum, Jia. 2010. *Study of the history of Book exchange between Korea and Chinese*. Seoul: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y.

Shi Jing. 2010. Translated by Kim, Hakju. Seoul: Myungmundang.

Shim, Kyungho. and Kang, Taekwon. 2006. *Read the Oriental Classics 3*. Seoul: Humanist.

Shim, Kyungho. 1999. *(Chosun Dynasty) Chinese Classics and the theory about Shi Jing*. Seoul: Iljisa.

Yang, Kyecho. 1995. *Introduction of Chinese Classics*. Translated by Lee, Kyeju. Seoul: Hyungsungsa.

Chung, Hyungwoo. and Yun, Byungtae. 1995. *The Catalog about Woodblocks for Books in Korea*. Seoul: Bokyungmunwhasa.

Chun, Hye bong. 2003. *Korean antique books in Bongjiwa library*. Seoul: Chisicsanupsa.

Han, Yungwoo. 2011. *A review of Korean history*. Seoul: Kyungsewon.

- Ok, Youngjung. 2005. "A Synthetic Study on Annotation of Fore Books(四書諺解) Published in the 17th Century: Make Systemetic and the Physical Bibliographic Analysis of Gyongseojabokgakb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ography Society*, 32: 361-386.
- Song, Il-Gi. 2014. "A Study on the Import to Chosun and It's Distributions of the Saseodaejeon Published by Yongrak."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1): 97-116.
- Song, Il-Gi. and Chung, Wanggun. 2004. "A Study on Printed Books of Great Learn(大學) Caved by Old Years in Chosun Dynasty."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5(4): 193-213.
- Lee, Se Dong. 2009. "Essays : The Process and Meaning of Liji(禮記) Included in Wujing(五經)."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53: 5-26.
- Ahn, Hyeonju. 2007. *A Study on Various Editions of the Four Books in Chosun Dynasty*. PH. D. dis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Yum, Jongil. 2005. *A Study on the printed books of 『Ch'un-ch'iu(春秋)』 commentary in Chosun Dynasty period*. M.A. thesis, Chungang University, Korea.
- Woo, Jinwoong. 2006. *Printing and Printed Books of Mencius in JoSeon Dynasty*. M.A. thesis, Kyungbuk University, Korea.
- Yoon, Bongtaek. 2007. *A Study of Joseon Period's Publication Culture in Jeju*. M.A. thesis, Chonnam Natonal University, Korea.
- Chung, Wanggun. 2003. *A Study on printed books of 『Great Learn(大學)』 in Chosun dynasty*. M.A.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http://history.go.kr>> [cited 2017. 2. 3].
- Kyujanggak, SNU.<<http://e-kyujanggak.snu.ac.kr>> [cited 2017. 1. 5].
- The Catalog of Korean antique books. <<http://www.nl.go.kr>> [cited 2016. 12. 10].
- Digital library of Korean Study, AKS. <<http://lib.aks.ac.kr>> [cited 2017. 1. 5].

『시전대전』 판본들

<p>甲寅字本</p>	<p>甲寅字本 刊記</p>	<p>明本覆刻本 初期本</p>	<p>全州河慶龍本 刊記</p>
<p>成均館本</p>	<p>成均館本 刊記</p>	<p>光州牧本</p>	<p>光州牧本 刊記</p>
<p>乙丑嶺營本</p>	<p>乙丑嶺營本 刊記</p>	<p>戊子嶺營本</p>	<p>戊子嶺營本 刊記</p>